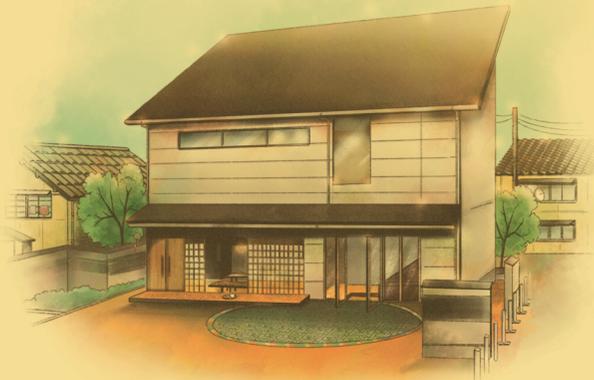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평화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왜 필요한가요?”



- ◆ 일본 강제동원의 역사와 해방 후
재일조선인 차별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 ◆ 한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 땅 위에
조선인 마을을 살려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 ◆ 한국 시민, 재일동포, 남과 북, 일본사회를 넘어선
연대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 ◆ 일본 시민에게 우토로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입니다.

우토로의 역사를 기억해주세요

우토로는 일본 땅에서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오랜 시간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제 강제철거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마을을 일구고 지킨
동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토로의 역사를 한국, 일본, 재일동포의
다음 세대에게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우토로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발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아름다운재단
기부참여 : 02-766-1004 | www.beautifulfund.org
기부계좌 안내
예금주 : 아름다운재단 | 하나은행 162-910006-81704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아름다운재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캠페인

기억할게 우토로





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고향으로 가지 못한 서러운 이들이 일군 마을 우토로



1941년 태평양 전쟁 중 교토군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 우토로 집단 합숙소 (합바)에서 거주합니다. 일본 패전 후 1,300명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은 노역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일본 땅에 방치 됩니다.

땅 주인과의 소송에서 전원 패소 후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우토로 주민들



1988년 땅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닛산은 주민들 몰래 우토로를 매각합니다. 새로운 땅 주인은 주민들에 대해 '건물수거, 토지명도소송을 제기 합니다. 2000년 일본 대법원은 우토로 주민 전원에게 패소 결정을 내립니다. 우토로 마을사람들은 불법점거 조선인들이 되어 강제퇴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댈 곳 없고 힘없는 우토로 주민들은 결국 조국을 향해 마지막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세기를 넘겨 한국에 우토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05년 우토로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아름다운재단, 한겨레21, MBC가 협조하여 모금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우토로 조선인들에 대한 미안함, 역사적 정의에 대한 간절함,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들을 담아 기부했습니다.

우토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염원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7년 마지막 퇴거 통보를 받고 모두가 절망에 빠졌던 때에 시민의 염원이 모여 마련된 성금 9억여 원은 정부지원금 30억 원을 이끌어 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토로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이 핍박 받던 땅 우토로를 우리 조국이 사버린 거나 다름없지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하는 마음으로 우토로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우토로를 지켜낸 역사는 기억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2018년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모금으로 매입한 토지 위에 지은 1기 시영주택에는 39가구 우토로 주민들이 입주하였습니다.

우토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평화기념관' 건립을 시작합니다



“낡은 우토로는 이제 철거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토로는 머지않아 잊혀지겠지요. 우토로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는 평화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우토로를 기억하는 일에 함께해 주겠어요?”